

불자 세상보기



선업 스님
광 행복처유 센터 원장

최근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별을 인정하지 못한 채 앙심을 품고 다양한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일명 '이별범죄'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성에 대한 잘못된 집착과 애정 표현이 낳은 이런 행위의 종류에는 헤어짐 상대의 알몸이나 속옷 차림의 사진,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와 스토킹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발표된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검거된 강력범죄자 중 피해자와 애인 관계였던 경우가 9912건에 달하고 2010년 1만354건, 2011년 9710건 등 연인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매 해 1만 건 정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별범죄에 대한 심리적 원인에 대한 이론으로는 '동기의 대립과정 이론'이 있다. 어떤 정서나 동기 상태와 상반되는 내적상태가 유도되는 경향성을 '대

립과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대상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중립 대신 실망감으로 물들게 된다. 이 이론을 헤어짐에 직면한 연인 관계에 적용해 보면, 사랑의 감정이 사라진 빈 자리에 그 만큼의 고통이 찾아오고 당사자는 내면의 부정적 심리를 외면화시켜 상대방에게 폭력 등을 통해 복수의 형태로 분출하는 것이다.

니가야를 보면 곳곳에서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것과 싫어하는 대상을 만나는 것이 대표적인 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헤어짐을 마주한 연인의 경우를 보면 한 쪽은 좋아하던 대상과 헤어질 수 없어서 괴롭고 또 한 쪽은 좋아하던 대상이 싫어하는 대상으로 돌변해서 괴로운 형태가 된다.

쌍방이 모두 괴로운 이 경우는 괴로움의 세 가지 성질(三苦性) 중 하나인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의 성질'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하여 청정도론에서는 "즐거움 느낌은 그것이 변할 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날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변화에 기인한 괴로움(壞苦)이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즐거움 느낌이 괴로운 느낌

의 발생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동기의 대립과정 이론과도 닮아 있다.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충동조절 장애에서 기인한 반사회적 수준의 공격성을 표출하는 이들에 대한 치유법은 약물사용에서 심리치료를까지 다양하다.

불교적으로는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이 생겨나며(S12:2)" 결국은 이를 조건으로 "늠음·죽음과 근심·탄식·육체적 고통·정신적 고통·절망"이 있게 된다 고 경전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갈애와 집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치유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내 가지 집착 중에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을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감각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순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하는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잘못된 의도에 전도되면 상대방이 '나의 소유'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화가 나고 동시에 해지려는 마음이 고개를 내밀게 되면서 폭력사용에 의해 견장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팔정도의 '바

른 의도'이다. 바른 의도란 "감각적 쾌락으로부터 떠나려는 의도, 성내지 않으려는 의도, 해치지 않으려는 의도(DN. II, 312)."를 말하는 것으로 바른 의도를 성숙시키는 것은 내 가지 무한한 사랑의 마음, 즉 사무량심이다. 자애와 연민,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수희의 마음과 평등·평정심을 기르면 집착으로부터 탈출하는 지름길이 열리게 된다.

사론 살스버그는 붓다의 러브레터에서 상대방을 평등하게 보고 자타(自他)·애증(愛憎)·원친(怨親)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평정심 향상 문구를 반복할 것을 권하고 있다.

현재 이별 범죄의 예방 방법으로 '싫다'는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그 전에 서로의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바로보고 수용하는 훈련부터 해야 '갈애와 집착의 번뇌의 화살을 뽑아 모든 슬픔을 뛰어 넘어' 헤어짐이 또 다른 만남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社說

어긋난 종교·역사관의 총리 후보

인적 쇄신을 다짐한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3공 이후 처음 언론인 국무총리로 나선 문창극 후보자의 과거 행적이 상식 이하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장로로 활동 중인 문 후보자는 2011~12년 강연에서 식민지 시대의 친일파가 말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의 발언을 정리하면 일제 식민지도 남북 분단도 하나님의 뜻이다. 조선 민족은 게으르다고 민족성을 비하했다. 일본이 한국 옆에 있는 축복이라는 일본 찬양 발언까지 했다. 과거의 칼럼을 통해서도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필요없다"는 국민 정서 절대 부합되지 않는 발언을 써내려갔다.

이런 상황에도 그는 교회라는 공간에서 특수하게 이뤄진 강연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유감이고 일반인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 문 후보자는 사과할 마음도 없고 자신의 망언에 잘못이 없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라는 공간에서 이뤄진 강연이고 자유 기고가로서 쓴 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문 후보의 무책임한 가치관은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는 매우 부적합하다. 교회 장로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총리가 공평한 행정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위안부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책임있는 국정 운영을 이뤄낼 수 있겠는가.

문 후보자의 발언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쓴 논리와 놀랍게도 흡사하다.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인 3·1운동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의 발언이 논란된 직후 역사정의실천연대와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는 12일 오전 문 후보자가 출근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친일 총리는 필요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그렇다. 우리에게서 어긋난 종교관과 역사관을 가진 총리는 필요 없다.

불교학 학점은행제 16년만의 쾌거

교육부가 학점은행제 불교학전공 학사학위 표준교육과정 신설을 승인했다. 이에 굳이 대학서 불교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평생교육원 등 별도의 교육기관을 통해 불교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998년 학점은행제가 실시된 지 16년만의 쾌거다. 사실 다른 종교의 교육 기관은 우리 불교보다 한 발 빨랐다. 기독교신학전공은 1999년, 가톨릭신학전공은 2004년 신설돼 전국의 대학 산하 평생교육원을 비롯한 평생교육기관서 수강할 수 있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서 기독교와 가톨릭 신학은 이미 자리를 잡아 체계적이고 질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하지만 우리 불교학 전공은 최근까지도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이같은 악조건인 상황에서 동국대 평생교육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다.

그 결과 불교정신의 확산과 대학의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 지난해 6월 국가평생교육

진흥원에 제안해 1년만에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를 비롯한 국내 주요 9개 대학의 동의를 받아냈고, 수요조사, 영향평가,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모두 통과했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결실이라 더욱 값지다.

이번 불교학 전공 신설을 통해 동국대를 비롯한 전국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불교에 관심이 있는 성인들에게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으며 체계적으로 전공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침체된 불교학 연구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불교학자들의 연구활동 활성화와 강의 기회 확대는 물론, 사찰에 설치된 불교양대학도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졌다. 이미 사찰에 설립된 조계사와 통도사 마인드케어 교육원의 경우 교과목 승인만 받으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쾌거가 불교학 발전은 물론 새로운 신행문화 정립에 크게 기여되길 바란다.

발언대

빈곤 문제 불교적 진단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이제 폭발 직전이다. 양극화로 인한 빈곤층의 고통은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6월 11일 토론회를 열고 한국 사회의 빈곤 문제에 대한 진단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뤄진 주요 패널들의 발언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완화되어야



우리나라의 경우 하루 평균 44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20%는 생활고를 비판해 자살을 한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135만명인데 비해 비수급빈곤층은 약 4배에 가까운 400만명으로 추정된다.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은 부양의무자기준, 소득인정액과 같은 대상자 선정 방식에서 기인한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라 할지라도 실제 소득이 전무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현행 제도는 간주 부양비, 추정소득 방식으로 수급권을 제한한다.

실제 생활과 무관한 까다로운 기준으로 수급자를 가려내는 방식은 복지 소외계층 발굴 일제조사를 하더라도 실효성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기존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 7가지를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맞춤형 개별급여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최저생계비를 무너뜨리고 책임주체를 각 부처로 떠넘겨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개악이다. 전 국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계를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해체시키고 무력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나라 빈곤율은 16.5%로 OECD 전체 평균인 11.3%를 크게 웃돈다. 노인 빈곤율은 그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현실에서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전 인구의 2.7%만을 포괄할 뿐이다. 때문에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노동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간주소득만큼 수급비를 삭감하는 조항역시 마찬가지이다. 재산, 소득기준역시 개선되어야 하며, 추정소득을 부과해 기초 수급자에서 탈락시키는 제도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빈곤은 즉각적으로 해결할 과제



연기법의 이치를 경제영역에 적용하면 불교적 경제공동체는 사회주의, 사회주의의 생산력 단계를 거친 공산주의도 아닌 원시적 형태의 공산사회에 가깝다. 그속에서 개인은 그가 무엇을 하든 지간에 고정된 수입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고정된 수입을 가지고 안전하게 자신의 기본욕구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국민경제 전체에 적용시키면 경제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안정된 고용을 통해 수입을 보장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국가에 의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완전 고용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실업자들이 고용될 때까지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에 어떤 손상도 받지 않은 채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불교적으로 보면 빈곤은 식량, 의복, 주거, 의료 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개인이나 집단에게 어떠한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부처님은 빈곤을 무서운 것으로 간주했다.

제자들과의 대화에서도 부처님은 빈곤에 대해 수차례 질문하며 그것이 무서운 것이냐고 묻고 있다.

이처럼 부처님은 빈곤의 위기를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우선적 과제로 보았다. 국가의 의무를 적된 상태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소생시키는 것에 찾았으며, 국가는 사회적 약자들이 빈곤상태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략을 발전시키고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셨다.

경제정책을 통해 물질적·비물질적 자원 분배에 있어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가 간섭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교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칠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을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강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상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